



코스피 1922.17 (-13.23)	코스닥 684.21 (-0.83)
금리 (연평균) 0.886 (-0.040)	환율 (1달러) 1224.80 (+4.30) (12일)



[금융]  
신보가 95% 빛 보중  
소상공인 긴급지원  
05



### 혼잡 지하철, 마스크 의무화

뉴스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많은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방향 열차에 탑승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설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 美·日, 반도체 독립 나서나 인텔·TSMC 공장 유치 추진

반도체 공급 불확실성 우려  
자국 내 생산비중 확대 노력  
파운드리 팹 건설논의 진행  
삼성전자도 美 협력 대상에

국내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로 '반도체 독립'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로 공급 불확실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 부품인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지만, 생산에서는 아시아에 대부분을 내준 상태다. 현지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팹리스(생산설비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방식)로 운영 중이고, 인텔과 마이크론만이 현지에서 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업체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를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인텔과 대만 TSMC에 미국내 파운드리 팹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도 나섰다. 자국에 인텔과 대만 TSMC 등 반도체 기업 거점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정성 확대와 함께 자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목적이다.

무게 중심은 인텔과 대만 TSMC에 쏠려있는 분위기다. 특히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전량 위탁 생산하는 TSMC에 적극적으로 공장 유치를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본도 TSMC의 새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SMC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라인.

/삼성전자



대만 TSMC 팹

/TSMC

반 이상을 점유하는 회사로, 애플뿐 아니라 엔비디아와 퀄컴 등 주요 팹리스의 주요 물량을 생산해왔다.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미국 현지에 끼칠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나마 일단 삼성전자도 미국의 협상 대상이다. 미국 오스틴 시스템 반도체 팹이 주인공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14nm 핀펫 공정을 적용한 공장에 5nm EUV 등 첨단 생산 시설을 확장하라고 요구 중이라는 전언이다. 삼성전자는 AMD와 퀄컴 등 미국 팹리스 물량을 주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로 보면 분명한 악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의 성장뿐 아니라 옵테인과 144단 낸드

플래시를 앞세워 새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인텔이 전략에 가속도를 붙일 수도 있다.

단, 업계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기 어렵고, 짓는다고 해도 우려만큼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팹을 짓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 짓고 나서도 이미 가동 중이던 공장만큼 효율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수율을 맞추는 것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은 어느 공장처럼 단순히 짓는다고 생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수년 내에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기간산업안정기금 가동 항공·해운업 집중 지원

산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상의 회장 등이 위원 추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항공과 해운업에 집중된다. 당초 자동차, 조선 등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축소됐고, 다른 업종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관련기사 3면〉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규모)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은 항공, 해운 등 2개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하려던 것에서 다소 수정됐다.

금융위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항공과 해운업은 지원소요 등이 제기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함했다"며 "다른 기간산업은 시장상황과 자금수요 등을 봐가면서 지원시기를 다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운용심의회는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의회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추천한다. 산업부장관이 빠지고 대한상의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국장은 "국회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만큼 위원 추천 절차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국장은 "심의회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는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인 일반적인 의사결정원칙을 준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다. 감사 등 기금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결의할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직접 신청한 경우다. 기금재산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는 고용총량의 9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은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산업이나 상황별로 다를 수 있어 소관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가감조정은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

# 빛내서 버틴다... 기업대출 역대 최대

한은 4월중 금융시장 동향  
기업대출 27조9000억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지난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계대출은 주택매매 거래가 줄면서 크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0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929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7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대기업 은행대출은 11조2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확보를 비롯한 한회사채·기업어음(CP) 상환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지난달 회사채 순발행액은 1000억원에 그쳤다.

중소기업 은행대출은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 대출은 10조8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은행이 초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나선 결과다.

은행가계대출은 915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9조6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다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 4월(5조2000억원)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 늘었지만 전월(6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김희주 기자 hj89@